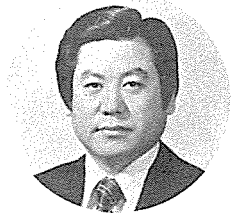


새로운 意志 와 方向 開拓으로 協會 活氣 回復을

金 萬 盛



요즘은 어느때와 달리 왠지 모르게 답답하리만큼 會員업무와 協會 進路問題에 對하여 심심찮게 口에 많은 事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建築士法이 史上 처음으로 國會에 까지 非약 급기야는 새로운 角度에서 改正을 가져왔고, 이를 補完 施行하여야 할 施行令도 또한 鎮痛 끝에 公布 단계에 와 있는 듯 하다. 이제 이렇게 변모하여 가는 時代潮流에 우리 會員 個人은 물론 우리의 모임인 協會도 새로운 方向을 找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一聯의 움직임은 그것이 우리의 살길과 進路이고 앞으로 先進國 대열에 발맞추어야 할 建築人의 資本이라 비유 되기에 非常한 關心과 參與가 切實히 要求되었던 動向이었다.

이것은 轉換點에 선 現實에 80年代를 向한 우리의 前途를 밝혀 줄 청사진이 時急히 提示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도 直結된다고 보아진다. 이런 轉換點에 直面하고 아울러 協會創立 13週年을 맞이하면서 本人은 침체下向 느낌의 現實에서 理想의인 協會 發展을 爲해 짧은 지면 이나마 듣고 體驗하고 또한 心中에 있던 생각을 間略히 構想해 보았다.

13年여 우리가 우리의 週邊을 가다듬고 또 우리의 成功을 爲해 작은 힘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蓄積해 온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우리 스스로 잘 살아보지고 어려운 立場을 무릎쓰고 始作한 設計費의 予置 制度가 이제는 成熟하여 年間 總 予置實積 70億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福祉面을 발굴 시행 初期단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建築行政의 大衆化 흡수를 爲해 相談室을 運營 많은 成果를 올리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支部의 自體的인 사업으로 건축자재총람집 이라든지 例規集 發刊 등으로 切實히 발 展해 온것은 駭論을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協會가 걸어온 많은 發展 뒤에는 試鍊도 많았다. 會員과 直 結된 法이 바뀌다 보니 갖은 억측과 意見이 분분하다. 協會存 如否니, 協會進路니, 또는 이에 對한 대응 책이니 하는 기우라할까 억측과 의견등으로 부심하고 있는듯 하다 . .

협회일에 關여하다 보니 많은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몇가지 귀착점을 뇌리에 감특케도 되었다. 本人은 종종 어느 座席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 “협회에서 왜 會員의 가려운데를 끊어 주지 못하는가” “協會가 일을 수행하는데 目標이 없지 않느냐” 하물며 “협회를 강력히 이끌어 갈 人物이 없지 않느냐”하는 애 기다. 부끄럽고 창피 스러운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지난날의 어려움을 개척 못한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會員 모두의 不찰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얘기는 協會를 爲한 忠告임에 틀림없다.

냉철한 反省과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게끔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심하고, 있는것이 당연지사 일런 지도 모른다. 하도 복잡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變化 속에서 精神을 바짝 차릴려니 그럴법도 하다.

한정된 土地의 利用率에 國家 百年大界를 向한 政陰의 都市計劃과 隋伴하여 수시 變更施行되는 市條例의 갖은 變更으로 因하여 우리 會員은 건축업무에 對한 路로 피로감 마저 느끼고 있는 實情이다. 나아가 一部 방황하고 있는 會員도 없지 않다. 바야흐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試鍊期를 훌훌 털어 버리고 새로운 活 氣를 找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 會員業務와 직결된 士法施行令 實施도 눈앞에 와 있다. 우리는 이제 피로감에서 벗어나 自身感 넘치 게 定款에 明示된 品位保全과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爲하여 國家 建築施策에 이바지하는 目的을 기필코 앞 당기는 즐거움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된다. 작금의 시련과 고통을 來日의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 오늘은

우리 자신과 협회가 새로운 覚悟와 意志로서 方向의 開拓이라 할까 우리의 준비를 마련해 보자. 이상적인 協會發展에 도움이 될까해서 本人이 그동안 마음속에 가졌던 몇가지 구상을 되새겨 본다. 우선 협회의 효율적인 運營體制를 爲해선 法이나 定款이 拘束力있게 先行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에 결들여 시행상의 路点으로 야기 될 수있는 일부 小意見은 大를 爲해 犠牲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이 強力히 要求되는 条隘이라 하겠다.

첫째, 자율적인 運營體制 方案의 하나로 회관을 移轉 高層建物化하여 別途 運營 隘會員負擔을 줄이고, 둘째 現행 統合予算制度로 빚어진 不均衡의 解消策으로 이를 廢止하고 地域과 實情에 맞는 事業의 推進과 會員 權益을 위해 民主的인 自率予算制로 전환하고 셋째, 협회 代議員制의 改善, 넷째, 집행 기구에 대한 會員의 참여도 확대, 다섯째, 사무기구를 制度나 사업 그리고 計劃에 依據 效率的이고 能率的인 집행을 爲하여 事務經營진단等を 通한다든지 分析 檢討하여 據大改善 例를 들자면 先進 外國의 境遇 建築行政業務 에 있어 建築士가 作成한 設計圖書를 添付하여 許可官庁에 接受하면 建築許可業務는 完決되는 것이다.

우리도 官보다 先行하여야 할 問題点은 會員各者의 法常識不足(例, 수시變更施行되는 市條例)그래서 干先 協會에서 이를 改善하기爲한 方案으로 專門技術職을 登용하여 事절에 設計圖書審議委를 構成하여 官에서 實施하는 審議委員會의 무용론이 나오도록 先行 內實을 다져야겠고 또한 工事監理業務의 誠實을 期하여 監理權限을 大幅이양 받아 不實建築物을 防止하는데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따라 設計보수율 上限線보스를 받도록 하기 爲하여 會員스스로가 団合 또는 協會에서라도 小規模建築物(一定規模)은 地域的인 問題를 고려하여 大規模 合同事務所에서 取級토록 果敢한 制度施行이 急先務라 生覺되며 이를 爲하여 忠分한 法研究라든지 資料提示를 하여 國家施策에 反映될만한 調査 統計 部 著의 新設 여섯째, 定期的인 與論調査를 통한 관심사 解決 이런 等等을 基반으로 하여 우리의 週邊을 扨扨히 하고 아이디어를 開發하여 國家技術人力 供給施策에 호응하기 爲한 技術학교法人의 設립이라든지 나아가 우리들 自身의 건축사村이라도 建립하여 남부럽지 않게 몇몇히 살 수있는 터전을 구축 할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 近間 新聞에 건축사 비위행위라 하여 큼지막하게 나와, 국민으로 부터 의심 받게 된 배경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만이 과중되어 있고 이에 상응될 권리조항이 법적으로 없는데도 기인 된다고 볼때 앞에 제시한 바와같은 우리의 이러한 高층을 關係당국에서는 관찰하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協會는 위와같은 進진으로 會員을 위하여는 주변 정화는 물론 關係當局과도 접촉과 노력을 게 올리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이러한 훌륭한 결실을 보기 爲해선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고 現實을 直視하여 무관심했던 會員들은 協會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門中 모두가 시행령 公布와 同時 우리 協會가 새로 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침체되었던 활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서울特別市支部長